

다음 정차할 곳은

입니다

‘영락공원 입구’, ‘국립 5·18 민주묘지’, ‘5·18기념문화센터’, ‘5·18 자유공원’ 그리고 ‘보훈회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광주 ‘518년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행선지 일부라는 점이다.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적지 등을 누비는 녹색 ‘518년 버스’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환기하는 매개체가 된다.

극단 토박이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으로 ‘버스킹(King) 버스’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17일(오후 7시 30분), 18일(오전 11시, 오후 2시) 총 3회에 걸쳐 민들레소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월 창작극 ‘버스킹 버스’는 현재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518년 버스를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작품을 통해 5·18민주항쟁의 아픔을 투사한 518년 버스의 상징성,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를 비롯해 노선 곳곳에 깃든 5월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지난해 말 토박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펼쳤던 ‘굿 스테이지 페스티벌’ 대미를 장식했는데 당시에도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오랫동안 518 버스를 운전한 ‘안 기사’는 잦은 사고와 운행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을 빌미로 버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다. ‘앞으로 제대로 운전하겠다’는 안 기사의 부탁에 회사는 딱 하루 마지막 기회를 준다.

결의를 다지고 운전석에 오르는 안 기사. 518년 버스에 있는 여고생, 할머니, 청년, 의문의 남자 등이 탑승한다. 그러나 운행 중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안 기사는 가까스로 잡은 마지막 기회

극단 토박이, 5·18 44주년 ‘버스킹(King) 버스’ 공연 17~18일 민들레소극장...노선에 깃든 5월 의미 담아

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한다. 한편 버스에 탑승한 ‘의문의 남자’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승객들과 충돌하기 시작한다. 과연 안 기사는 무사히 운행을 마치고, 승객들은 오해와 갈등을 넘어 ‘화합’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시놉시스는 계엄군 문제와 관련해 광주에 산적해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들을 환기시킨다. 계엄군과 광주 시민군 간 관계, 진상규명 등을 둘러싸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5월 단체들의 갈등이 바로 그것.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4년 간의 활동 성과를 담은 조사보고서 등을 발표했으나, 5월 단체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조사위원 등은 “역사 왜곡 세력의 뒷받침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5·18과 계엄군 문제 등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이번 공연의 의미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운이 연출했으며 임해정, 김정훈, 최해민, 정수린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오월극 ‘금희의 오월’, ‘모란꽃’, ‘정실홍실’, ‘마중’, ‘오! 금남식당’은 물론 다양한 가족극, 어린이·청소년극 등을 선보여 왔다.

토박이 관계자는 “광주시민은 물론 타 지역민에



▲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극단 창작극 ‘버스킹(King) 버스’의 한 장면. <극단 토박이 제공>



▲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극단 창작극 ‘버스킹(King) 버스’의 한 장면. <극단 토박이 제공>

가정의 달 야외서 즐기는 ‘가족 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 24일 쌍암공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야외의 나들이 현장 에서 즐기는 ‘가족 음악회’가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합창단)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가족음악회’를 연다.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등을 비롯해 가곡, 클래식 음악을 합창, 중창, 독창으로 선보이는 무대다.

무반주 혼성합창곡 ‘I Sing, You Sing’, 모차르트 최후의 3대 교향곡 중 하나인 ‘교향곡 40번’ 두 곡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한국 가곡 ‘사랑의 꿈’을 소프라노 김지나가 독창하며 ‘봄의 소리 왈츠’는 소프라노 정혜진이 들려줄 예정이다. 지휘에 이준.

매력적인 카르멘과 열정적인 돈 호세 등 다양한 캐릭터로 주목받는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는 바리톤 윤찬성의 목소리에 실린다.

“시간 좀 내주세요- 갈 데가 있소”라는 가사를 통해 하이마트 CF로도 알려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은 테너 유정석, 바리톤 손승범이 부른다.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피카로의 결혼’도 올려 퍼진다.



지난해 8월 쌍암공원에서 펼쳐졌던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여름의 끝자락을 합창과 함께’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합창단 악장 이종만(바이올린)은 짝꿍 출연해 ‘타이스의 명상곡’과 몬티 ‘차르다시’ 연주를 들려 줄 예정이다. 후반부에는 ‘겨울왕국’ OST ‘같이 눈사람 만들래?’, 아무진 ‘신호등’이 리더안팍토리 밴드와 혼성합창에 실린다.

혼성그룹 거북이의 ‘비행기’나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 ‘그대라는 시’ 등 익숙한 노래들도 관객

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 ‘My Favorite Things’는 메조 소프라노 오지영이 독창한다.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2중창’ (소프라노 장미화·알토 김혜진), ‘Time to say Goodbye’ (소프라노 김은혜·테너 유정석)도 레퍼토리에 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존 카사베츠 ‘오프닝 나이트’ 스틸컷

‘존 카사베츠 X 지나 롤랜즈 특별전’

11~19일 광주극장

미국 영화감독이자 배우로 활동한 ‘존 카사베츠’의 작품을 말할 때 ‘지나 롤랜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영향 아래의 여자’, ‘오프닝 나이트’, ‘글로리아’ 등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 예술적 시너지를 일으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존 카사베츠 X 지나 롤랜즈 특별전’을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연다.

이번 특별전은 미국 독립영화의 아이콘이자 미학적 동지, 부부 예술세계를 개진한 두 예술가의 작품 총 3편을 만나는 자리다.

강렬한 클로즈업을 통해 인물들의 감정변화를 잘 담아낸 1968년작 ‘얼굴들’을 먼저 감상할 수 있다. 14년간 결혼생활이 파경으로 치닫는 리처드와 마리아 부부를 초점화해 이들이 각기 다른 남녀와 밤을 보낸 뒤 펼쳐지는 이야기다. 리처드 역을 맡은 존 말리는 같은 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여 74년 개봉한 ‘영향 아래의 여자’도 볼 수 있다. 무심한 닉과 세 아이를 둔 메이블이 홀로 집에 남겨질 때 겪는 신경쇠약적 증상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 카사베츠 감독

의 절친한 친구이며 ‘형사 콜롬보’로 알려진 피터 포크, 실제 어머니와 장모 등이 닉의 가족으로 출연했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카사베츠 결작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신경쇠약과 패닉 상태를 여배우를 통해 묘사한 ‘오프닝 나이트’ (1977)도 상영한다. 지나 롤랜즈가 이 작품을 통해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점, 존 카사베츠가 직접 배우로 출연했다는 점 등은 두 사람의 영화 미학을 탐구하는 데 ‘오프닝 나이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광주극장은 특별전 외에도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 (15일 개봉), ‘송암동’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차이콥스키의 아내’ 및 ‘힙노시스: LP커버의 전설’ 등은 현재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배우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메소드 액팅’과 또 다른 스타일의 사실적 연기를 연출한 존 카사베츠는 한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스크린에 담아낸 감독으로 평가받는다”며 “이번 특별전은 하마구치 류스케, 왕가위 등 수많은 감독에게 영향을 남긴 ‘거장의 미학’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자연심상과 도시일상의 ‘몽치산수’

조근호 전, 10일부터 아크갤러리



‘몽치산수’

그의 작품을 보고 싶다면 동화 속 어떤 나라를 떠올리게 된다. 맑고 투명하다. 작가가 상징하고 추구하는 세상이 대략 기늠이 된다. ‘몽치산수’라는 제목은 또 어떤가. 지극히 역설적이면서도 희극적이다. 하고 많은 멋진 제목들이 많은 데 작가는 왜 몽치산수라고 명명했을까.

조근호 작가의 ‘자연심상과 도시일상의 몽치산수’를 주제로 한 기획 초대전이 열린다.

아크갤러리에서 10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몽치산수’ 연작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대작 위주로 소품을 포함한 25점이 출품됐다.

순수한 자연의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 앞에 서면 때 묻지 않았던 지난 시절과 조우하게 된다. 그림이 주는 힘이다. 무겁지 않은, 밝고 경쾌한, 한박

자 씬의 여유를 선사한다. 어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반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작품은 심그림기만 한 오월의 무등산을 모티브로 했다. 중의적이다. 동화적, 회화적인 이면에 현실적, 비극적이라는 어휘와 장면들이 환기된다. 현대사의 비극인 광주 오월은 사실은 무등산의 비극이나 다름없을 테니까.

이때 무등산 오월은 푸른 초록으로 무성하다. 아름답다는 수사를 넘어 생명의 신비와 경이가 느껴진다.

작가는 상흔이 없던 시절, 아니 상흔 너머의 무등산이 펼쳐내는 내일의 꿈을 풀어낸 듯하다. “어젯이 한데 모여 덩어리를 이루다”는 뜻의 ‘몽치’는 무등이 품고 있는 사랑이자 가치일 것이다.

화면 속 여러 덩어리는 이리저리 맞물려 조화로 온 무등산을 이룬다. 기운 조각들이 근사한 옷을 만들 듯 화면을 맞추하니 분할한 조각들은 결국 하나의 생명체로 수렴된다. 오늘의 무등산이 품은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그 안에 오롯이 투영돼 있다.

조 작가는 “매일 장 너머로 마주하는 무등산을 바로 직관하며 그 기운과 품세를 여러 유형으로 모아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나가, 매일 경험하는 또 다른 일상으로 소재의 확장성을 갖는다”며 “‘몽치산수’는 자연과 도시 풍경들의 단순화와 조형적 질서, 면과 색채의 조응관계와 균형 등 형상 탐구와 분석 통합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우리강 그리기대회’ 5월 25일 영산강문화관 등 4곳

전국 4개 강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워터 운영관리(사장 우달식)는 우리강과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린이 우리강 그리기대회’를 연다.

‘사람과 자연, 함께하는 우리강’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5일 영산강문화관 등 전국 4개 강문화관에서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만 7세~12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와 아울러 참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블&마술쇼를 비롯해 어린이 끼 경험대회, EM 흙공 만들기, 공예체험, 생태체험(매타

세퀴아어 열매 적정인형 만들기), 포토존 운영 및 푸드 트럭 먹거리도 운영한다.

수상작은 총 192작품을 선정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총 4개 작품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나머지 장려상·특별상 등에는 케이워터운영관리 사장상, (사)한국미술교육협회 이사장상, 지역 교육지원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2012년 강문화관이 처음 개관한 이후 전국 4개 강문화관에서 최초로 동시에 진행된다.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미니멀 웨이스트’ 대회에 초점을 맞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